



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

| 투자전략/시황 Analyst 한지영 hedge0301@kiwoom.com

| 시황/ESG Analyst 이성훈 shl076@kiwoom.com



키움증권

미 증시, IMF의 성장을 상향에도, 대선 및 실적시즌 대기심리 등으로 혼조세

미국 증시 리뷰

22일(화) 미국 증시는 3분기 실적 시즌, 금리 인하 지연 우려 등의 요인으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지속된 영향으로 3대 지수는 혼조세 마감 (다우 -0.02%, S&P500 -0.05%, 나스닥 +0.18%)

국제통화기금(IMF)은 올해 전세계 경제성장을 기준 7월 수치와 동일한 3.2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.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성장을 은 지난 7월 대비 0.1%p 높은 1.8%로 전망. 국가별로 살펴보면, 실질 임금상승에 따른 소비 개선 등의 요인으로 미국은 0.2%p 상승한 2.8% 전망. 영국은 0.4%p 상승한 1.1%, 프랑스는 0.2%p 상승한 1.1%, 스페인은 0.5%p 상승한 2.9% 등 유럽은 대체로 통화정책 완화 영향으로 성장을 전망치 상향 조정. 다만, 독일은 제조업황 부진으로 0.0%의 성장을 예상. 한국은 지난 7월 수치와 동일한 2.5%의 성장을 전망치를 유지.

IMF 보고서는 팬데믹 이후 미국 경제는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유로존은 독일 등 제조업황 불황으로 부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. 이에 2025년도 미국의 경제성장을은 지난 7월 대비 0.3%p 상승한 2.2%로 예상한 반면, 유로존은 전망치를 0.3%p 하락한 1.2%로 하향 조정. 한편, IMF에 따르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, 지정학적 위기 심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, 중국 부동산 부문 위축 지속 등의 요인을 글로벌 경기 하방 요인이라고 지적.

미국의 초과 유동성을 가능할 수 있는 지표인 연준 역레포 잔액은 현재 약 2,370억 달러를 기록, 지난 2021년 5월 중순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. 역레포 잔액은 분기 말 효과로 일시적으로 잔액이 증가했던 지난달 말에 비해 감소하며, 이번 달 15일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3천억 달러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.

주요 종목별 등락률을 살펴보면, M7 종목 중 마이크로소프트(+2.08%), 알파벳(+0.65%), 메타(+1.19%), 아마존(+0.33%) 등은 상승한 반면 애플(-0.26%), 테슬라(-0.40%), 엔비디아(-0.08%)는 하락. 업종별로 살펴보면, 필수소비재(+0.9%), 통신(+0.4%), 에너지(+0.2%)는 상승한 반면, 산업재(-1.2%), 소재(-0.9%), 유틸리티(-0.4%)는 하락. 특징주로는 GM(+9.81%)의 3분기 매출액(발표치 486.6억 달러 vs 컨센서스 446.7억 달러)이 전년 대비 10.5% 상승, EPS 또한 컨센서스(2.43달러)를 상회한 2.96달러 기록 등 어닝서프라이즈 기록 한 가운데 급등세를 보임.

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현재 시장은 미국 대선에서의 트럼프 당선 가능성, 3분기 실적시즌 대응에 주력하고 있는 분위기이지만, 전일 IMF의 수정 경제전망 발표도 눈에 띠는 부분. IMF는 '25년 전세계 경제성장을(4월 전망치3.3% → 10월 전망치 3.2%)을 0.1%p 소폭 하향했으며, 선진국 내에서는 유로존(1.5% → 1.2%), 신흥국 내에서는 브라질(2.4% → 2.2%), 멕시코(1.6% → 1.3%) 등의 성장 둔화에서 주로 기인(한국은 2.2%로 유지).

그러나 전반적인 성장을 둔화 폭이 크지 않은 가운데, 미국은 소비 개선 효과 등으로 25년 성장률(1.9% → 2.2%)이 상향된 점에 주목 할 필요. 이는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인하의 성격이 사후적 수습보다는 선제적 대응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는 부분. 더욱이 3분기 실적시즌 이후 수치 변화는 있겠으나,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익 다운 사이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한국, 미국 등 주요국 증시에 하방 경직성을 부여하는 요인이 될 전망.

전일 국내 증시는 트럼프 당선 불확실성 재확산, 연준 인사의 점진적 인하 발언 등에 따른 미국 금리 급등이 바이오, 이차전지 등 성장 주를 중심으로 하방 압력을 가하며 급락 마감(코스피 -1.3%, 코스닥 -2.8%).

금일에는 엔비디아(-0.1%)를 중심으로 한 미국 증시의 숨고르기, 미 10년물 4.2%대 돌파에도, 전일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매수세 유입, 미국 GM(+9.8%)의 어닝서프라이즈로 인한 자동차 업종의 투자심리 회복 기대감 등으로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. 장중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, LG이노텍 등 주요 기업 실적 이벤트에 따라 업종별 반등 탄력이 상이해지는 흐름을 연출할 것으로 판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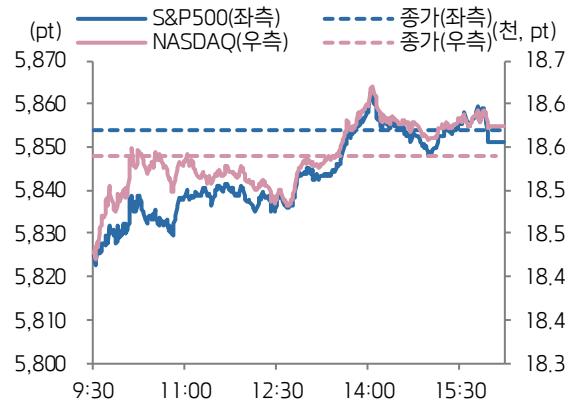
한편, 어제의 급락을 포함해 최근 국내 증시가 취약한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요인은 정치, 실적 등 다수의 요인들이 존재. 트럼프 당선 시 관세정책, 재정적자 심화 등 미국발 정치 불확실성이 주가에 부정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. 과거 트럼프 1기 시 절처럼, 향후 예상되는 그의 관세 정책이 미국 이외의 증시에게는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점증하고 있는 모습.

사실 이보다는 실적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주가 동력이 마련되지 못한다는 점이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. 일례로, 10월 초 삼성전자, LG전자 등 주력 기업들의 잠정실적 발표 이후 3분기 실적시즌 뿐만 아니라 이후의 실적시즌에 대한 자신감의 하락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. 그 결과 12개월 선행 영업이익은 10월 초 319조원에서 316조원으로 약 3조원 하향된 상태이며, 이후에도 추가 하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으로 형성 중에 있음.

또한 코스피가 지난 9월 말 이후 장기 추세선인 200일선 이하에 머물러 있는 채 좀처럼 상향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. 이는 펀더멘털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추세 반전을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망심리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입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는 부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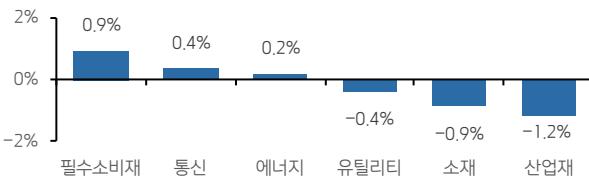
다만 실적시즌 기대감 약화는 10월 중 미국, 일본, 중국 등 여타 증시 대비 소외되는 과정에서 주가 상으로 소화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. 금주 후반(목요일 이후) 예정된 국내 반도체, 자동차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이후 상황 반전의 가능성에 열려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. 더 나아가, 보수적 벨류에이션 지표인 12개월 후행 PBR이 22일 종가 기준으로 0.9배를 기록하며, 8월 초 블랙먼데이(0.87배), 9월 초 침체 내러티브 재확산(0.88배)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점도 눈 여겨볼 만한 요인. 이를 감안 시 금일 또는 금주 남은 기간 미국 대선 불확실성, 금리 상승 우려 등 매크로 및 정치 노이즈가 확산되더라도, 매도 포지션 확대 전략은 지양하는 것이 적절

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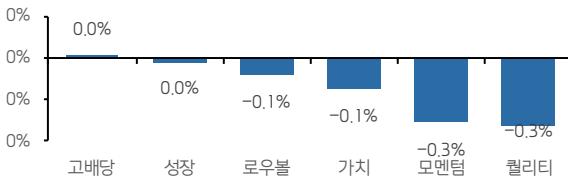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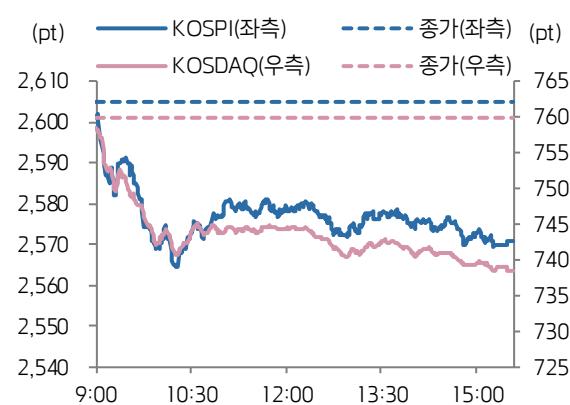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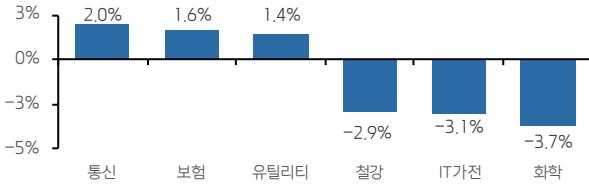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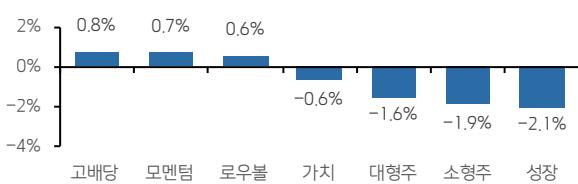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종목

종목	종가	DTD(%)	YTD(%)	종목	종가	DTD(%)	YTD(%)
애플	235.86	-0.26%	+22.97%	GM	53.73	+9.81%	+50.8%
마이크로소프트	427.51	+2.08%	+14.31%	일라이릴리	909.15	+0.33%	+56.72%
알파벳	165.14	+0.65%	+18.51%	월마트	82.02	+1.5%	+57.6%
메타	582.01	+1.19%	+64.92%	JP모건	224.12	+0.5%	+34.9%
아마존	189.70	+0.33%	+24.85%	엑손모빌	120.70	+0.52%	+23.82%
테슬라	217.97	-0.4%	-12.28%	세브론	150.92	+0.03%	+4.47%
엔비디아	143.59	-0.08%	+190.01%	제너럴일렉트릭	82.02	+1.5%	+57.6%
브로드컴	179.38	-0.34%	+62.43%	캐티필러	388.46	-0.52%	+33.49%
AMD	154.09	-2.41%	+4.53%	보잉	159.88	+0.04%	-38.66%
마이크론	107.82	-1.16%	+26.72%	넥스트에라	83.70	-0.4%	+40.9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주요 지수

주식시장				외환시장			
지수	가격	DTD(%)	YTD(%)	지수	가격	DTD(%)	YTD(%)
코스피	2,570.70	-1.31%	-3.19%	USD/KRW	1,379.60	+0.06%	+7.11%
코스피200	342.09	-1.31%	-4.44%	달러 지수	104.08	+0.06%	+2.71%
코스닥	738.34	-2.84%	-14.8%	EUR/USD	1.08	-0.15%	-2.17%
코스닥150	1,249.54	-3.16%	-10.33%	USD/CNH	7.14	-0.01%	+0.14%
S&P500	5,851.20	-0.05%	+22.67%	USD/JPY	151.08	+0.16%	+7.12%
NASDAQ	18,573.13	+0.18%	+23.73%	채권시장		가격	DTD(bp)
다우	42,924.89	-0.02%	+13.89%	국고채 3년	2,942	+3.7bp	-20.3bp
VIX	18.20	-0.93%	+46.18%	국고채 10년	3,127	+7bp	-4.8bp
러셀2000	2,231.53	-0.37%	+10.09%	미국 국채 2년	4,032	+0.1bp	-21.8bp
필라. 반도체	5,190.71	-0.47%	+24.31%	미국 국채 10년	4,208	+1.2bp	+32.9bp
다우 운송	16,249.94	+0.37%	+2.21%	미국 국채 30년	4,497	-0.3bp	+46.8bp
상해증합	3,285.87	+0.54%	+10.45%	독일 국채 10년	2,318	+3.6bp	+29.4bp
항셍 H	7,363.00	+0.31%	+27.64%	원자재 시장		가격	DTD(%)
인도 SENSEX	80,220.72	-1.15%	+11.05%	WTI	71.74	+2.43%	+2.05%
유럽, ETFs	가격	DTD(%)	YTD(%)	브렌트유	76.04	+2.36%	-1.3%
Eurostoxx50	4,939.31	-0.04%	+9.24%	금	2,759.80	+0.76%	+27.76%
MSCI 전세계 지수	851.27	-0.27%	+17.09%	은	35.04	+2.83%	+45.48%
MSCI DM 지수	3,740.27	-0.34%	+18.02%	구리	438.05	+0.48%	+12.59%
MSCI EM 지수	1,148.42	-0.58%	+12.18%	BDI	1,546.00	-1.9%	-26.17%
MSCI 한국 ETF	60.88	-1.15%	-7.1%	옥수수	416.50	+1.71%	-17.28%
디지털화폐	가격	DTD(%)	YTD(%)	밀	576.00	+0.66%	-13.9%
비트코인	67,498.07	-0.33%	+58.79%	대두	1,000.50	+1.09%	-20.14%
이더리움	2,632.79	-1.57%	+15.36%	커피	249.85	-0.74%	+32.69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10월 22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다.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